

Climate Ambition Summit (기후야망 정상회의), 더 많은 행동 약속



12.14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지난 12월 12일 기후 야망 정상 회의에 참가한 전 세계 75명의 지도자들은 날로 커지는 기후 변화 지표와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공약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파리 협정 5주년을 맞이하여 유엔, 영국, 프랑스가 공동 주관하고, 이탈리아와 칠레가 후원한 이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 총회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행사 끝 무렵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 초로 예정되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혹은 회의 직전에 미리부터 탄소 배출 감축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65%, 세계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순 제로 배출 또는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로 약속했음을 의미한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

“이번 정상회의는 더 많은 국가와 더 많은 기업이 우리의 미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해 줄 대담한 기후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이 회의는 앞으로 내딛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지만,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세기 말 경 '3도 이상 온도 상승'이라는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재앙일 것입니다.”

“최근 2건의 WMO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 가스 농도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으며, 2020년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지구평균기온이 약 1.2 °C 높아 역대 가장 따뜻한 3년 중 하나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5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했습니다.”

“COVID-19로부터의 회복은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 맞춰 우리 경제와 사회가 녹색 경로를 따라 가기로 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1년도 유엔의 핵심 목표를 탄소 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